

# 박사 학위 논문 핵심소개

# 동방대학원대 첫 박사학위자 5명 배출

## # 원효 무애춤 효과 증명-도각 스님

도각 스님은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부적 정서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라 고승 원효 대사의 무애춤을 중심으로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 스님은 호흡명상 못지않게 동작명상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름을 무애라 했다. 배는 가을 매미 같고, 목은 여름 자라 같다. 그 굽은 것은 남을 따르려 한 것이고, 그 빈 것은 불건을 응납하려 했다"는 기록과 한쪽 발을 들고 뿔다는 춤사위 묘사에서 영감을 얻은 도각 스님은 무애춤 복원에 앞장서 왔다.

논문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우울과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은 2008년 7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연구대상 선정 △프로그램 개발 △보조자 훈련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자료 분석 순으로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을 처치한 실험집단 20명과 그렇지 않은 19명을 조사했다.

실험방법은 20명에게는 무애춤 중심의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을 가

르친 후 1개월 뒤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게 했다. 스님은 토론내용을 기록한 종합평가서와 보조자 2명의 종합평가서를 대조해 분석했다.

도각 스님은 "종합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부적 정서(우울, 불안)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 및 대인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처리를 위해 스님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검사지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에 크론바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해 활용했고 양적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지점을 반복측정치로 해 반복측정 변량분석(ANOVA)이 실시했다.

도각 스님은 "연구를 통해 동작명상치료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의 명상치료에서 통용되던 호흡치료법과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 전문 대학원대학인 동방대학원대학교가 개교 4년 만에 첫 박사를 배출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욱)는 2월 20일 졸업식에서 도각 스님 등 5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도각 스님(자연치유학과), 김일두 변호사(사회예술학과), 소재학 회장(하원정명리학회)은 박사학위논문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오행과 십간십이지의 기존 견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해석을 시도했다. 소재학 회장은 오행설 등 이론에 대한 문헌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인 근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쳤다. 오행설 연구는 '오행원(五行圖) 모델' 분석과 관찰자의 시점 등을 적용해 새롭게 해석했다.

특히 원효의 무애춤을 비롯해 사주로 대표되는 역학(易學)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에 박사학위가 수여돼 눈길을 끈다. 이날 학위수여로 원효의 무애춤은 1600여 년 세월을 거슬러 효과를 증명했고, 잡기론만 인식되던 역술은 국내 제1호 박사가 셋이나 탄생해 역술이 아닌 역학으로 제도권 학문에 안착했다. 미수(米壽)의 나이로 만학의 꿈을 이룬 김일두 변호사까지. 화제가 가득한 동방대학원대학교의 최초 박사학위자 5인의 논문을 소개한다.

조동섭 기자

## #오행·십간십이지 새롭게 조명-소재학 회장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십간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申壬癸), 열두 동물을 뜻하는 십이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말한다.

소재학 회장(하원정명리학회)은 박사학위논문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오행과 십간십이지의 기존 견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재해석을 시도했다.

소재학 회장은 오행설 등 이론에 대한 문헌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인 근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쳤다. 오행설 연구는 '오행원(五行圖) 모델' 분석과 관찰자의 시점 등을 적용해 새롭게 해석했다.

소재학 회장의 주장은 불은 나무로부터 생하지만 나무가 많으면 작은 아궁이에 큰 장작을 넣는 것과 같아 오히려 아궁이 불을 꺼뜨릴 수 있고, 나무가 불을 살린다고 해도 나무

(生)하지만 화(火)는 목(木)을 같이 생(生)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극(相剋) 역시 목(木)은 토(土)를 극(剋)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화가 목을 생하고, 토가 목을 극하는 것은 편생(偏生)과 편극(偏剋)의 형태이다. 오행 간에 서로 생하고 극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관계가 주장됐던 것은 '관찰자의 시각' 혹은 오행을 바라보는 '기준'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재학 회장의 주장은 불은 나무로부터 생하지만 나무가 많으면 작은 아궁이에 큰 장작을 넣는 것과 같아 오히려 아궁이 불을 꺼뜨릴 수 있고, 나무가 불을 살린다고 해도 나무



역시 불 기운이 있어야 썩지 않고 나무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공생(共生)의 도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재학 회장은 "부분' 기준으로 오행 각각의 관계를 보면 상생상극이 아닌 편생편극이며, '전체' 기준으로 보면 상생상극"이라고 말했다.

소재학 회장은 토(土)가 오행에서는 흙 기운을, 방위에서는 중앙을 뜻한다는 데 착안해 토의 역할 변화과정을 연구했다. 소재학 회장은 "오행이 관찰자 시점 변화에 따라 '오행'으로 인지될 수도 있고, '시행'으로 인지될 수도 있다"며 "오행의 5요소가 동서남북의 사방과 춘하추동 사계절의 4요소에 대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재학 회장은 "음양오행설 등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며,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에 합당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한 학문"이라고 역설했다.

항목별로 대분류하고 다시 같은 내용끼리 소분류해 풀이했다.

소재학 회장은 "기문둔갑 이론의 핵심은 원사(元帥)인 갑목(甲木)이 경금(庚金)의 극살(剋殺)을 피해 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수의 직할부대인 삼기(三奇)를 이용하거나, 예하부대인 육의(六儀)의 아래에 숨는다"고 설명했다.

소재학 회장은 "기문둔갑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파조수가'가 필수"라며 "기문둔갑이 불확실성과 무한정점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 유용한 대안으로 순기능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사찰 편역 정리-김일두 변호사

김일두 변호사(85)는 故 육영수 여사 저격시 서울지검장으로 사건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사찰의 편역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깊이있는 전란과 외침과 화재로 인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한 사찰이 매우 드물다"며 "그만큼 오래된 사찰 편역도 귀귀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행히 신라의 김생과 최치원, 고려의 공민왕이 쓴 사찰 편역이 전해지고, 조선에서는 세조를 비롯해 영전왕까지 다양한 어필 편역이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사찰 편역을 통해 조선의 명가와 명필 및 법사들이 쓴 선필을 정리한 그는 금석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자(大字, 큰 글씨)의 색다른 서체와 서풍을 살펴봤다. 김일두 변호사는 "금석문에서 찾기 힘든 색다른 서체와 서풍을 근현대 명가와 명필들이 쓴 서찰 편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역대 대통령의 하사편역(下賜扁額)을 비롯해 어린 동자나 여성이 쓴 편역도 조사했다. 작가의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사찰 편역과 전혀 쓴 사람을 모르는 무명씨의 편역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법력이 뛰어난 선사의 선필과 외국인 쓴 사찰 편역, 한글로 쓴 편역까지도 정리했다.

김일두 변호사는 "사찰편역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서예사의 실물자료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한국서예사와 불교미술과 문화를 연구에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찰편역은 사찰에 딸린 문화재의 일부이다. 불상·석탑 등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비해 사찰편역은 그렇지 못하다.

김 변호사는 "편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고, 편역에 대한 자료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사찰편역은 불교교리를 적어 불교건축 등을 보여주며, 서예적으로는 금석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김일두 변호사는 "앞으로 사찰 편역이 국보나 보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명리학 용신 도출법 재정리-유경진 박사

사주에서 용신(用神)은 약이다. 불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을 끄기 위해 소방수(水)가 필요하고, 나무가 많은 사람에게는 나무를 베어낼 도끼(金)가 있어야 하는데, 용신은 소방수와 도끼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유경진 박사는 논문 '명리학 용신 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쉬운 용신 도출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 박사는 "사주로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데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정확한 용신을 구별하

## #기문둔갑비결 주해-오청식 박사

기문둔갑은 병법술의 하나로 음양의 변화에 따라 길흉을 택하는 술법이다. 기문둔갑의 형성시기는 대략 춘추전국시대로 추정된다. 오청식 박사는 학위논문 '기문둔갑 연파조수가(煙波釣叟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 박사 논문의 요지는 기문둔갑 이론에 기초한 연파조수가의 주해. '연파조수가'는 송나라 초기 재상인 조보(趙普)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7인 224구 1568자로 구성된 대서사시로 기문둔갑을 광범위하고도 가장 정밀하게 묘사한 시경(詩訣)이다.

오청식 박사는 '연파조수가'를 군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기문둔갑 이론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역점을 뒀다. 논문은 '연파조수가'를

기문둔갑은 병법술의 하나로 음양의 변화에 따라 길흉을 택하는 술법이다. 기문둔갑의 형성시기는 대략 춘추전국시대로 추정된다. 오청식 박사는 학위논문 '기문둔갑 연파조수가(煙波釣叟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경진 박사는 논문 '명리학 용신 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쉬운 용신 도출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 박사는 "사주로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데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정확한 용신을 구별하

했고, 개념은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확립됐다. 유 박사는 논문에서 <명리정종>은 병약용신론의 기원이 된 병약설과 억부용신론의 태동이 된 개두설, 동정설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유경진 박사는 간명법을 설한 <삼명회통(三命通會)>이나 격국용신론에서 순역론의 시초인 <자평진전(子平眞詮)>, 조후용신을 위주로 억부용신을 설한 <궁통보감(窮通寶鑑)> 등을 용신론별로 재정리했다.

유 박사는 "격국론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격국 등이, 억부용신은 중화

론, 절기, 포태법, 생극회기론, 동근법, 강약론, 육신론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후용신은 한난 조습론, 일주회기론 등이 병약용신론에서는 병약설이, 통관용신은 통관론이 주된 내용이었다. 변격은 종(從)하는 오행이나 육신(六神)이 용신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박사는 "명리학은 기상의 변화를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더우면 시원한 것이 필요하듯 엄격한 법칙이 있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창립법회에 모십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청정하고 화합하는 진정한 승가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종단 내외의 염원과 의지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법망구의 심정으로 오직 부처님의 정법대로만 살아가서 서원하는 결사대중이 모였습니다. 21C 한국불교의 대안을 모색하고 정법에 입각한 자자와 타마정신으로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창립법회

- ▶ 일시: 불기 2553(2009)년 3월 6일 오후 4시
- ▶ 장소: 조계사 극락전

##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준비위원장 만 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810호  
전화 (02)732-1209 / 팩스 (02)739-5570 / 홈페이지 : seungga.org

# 한국불교 법안 조계종 창종 및 임원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을 창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창종 및 취임법요식을 병행하고자 하오니 수회 동참하시어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승정원 법성	승정원 운경
총무원장	대현	총회의장	본자		
교육원장	승법	호법원장	원광	포교원장	정도
교시원장	원진	문화원장	무공	수선원장	서연
비구니원고문	도하	비구니원장	효상		
총무부장	불현	재무부장	혜진	사회부장	혜명
호법부장	무성	사업부장	혜명	복지부장	영산
비구니원사무부장	정담			규정부장	도영
				봉사부장	흥운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포교부원장	원주
경북교구원장	제법	강원교구원장	도현	충북교구원장	지호
				감사원장	법안
				의전원장	동선
				감사부원장	현공

다 음

- ◆일시: 2009년 3월 9일(음 2.13)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수원 마이웨딩 뷔페 (동수원사거리 동수원빌딩 옆)
- ◆연락처: 총무원 / 봉행위원회 (031)217-2633, 221-0116
- ◆2009년 6월 30일까지 임종하시는 분은 임종비를 받지 않습니다.

## 한국불교 법안 조계종 창종 및 취임 봉행 위원회